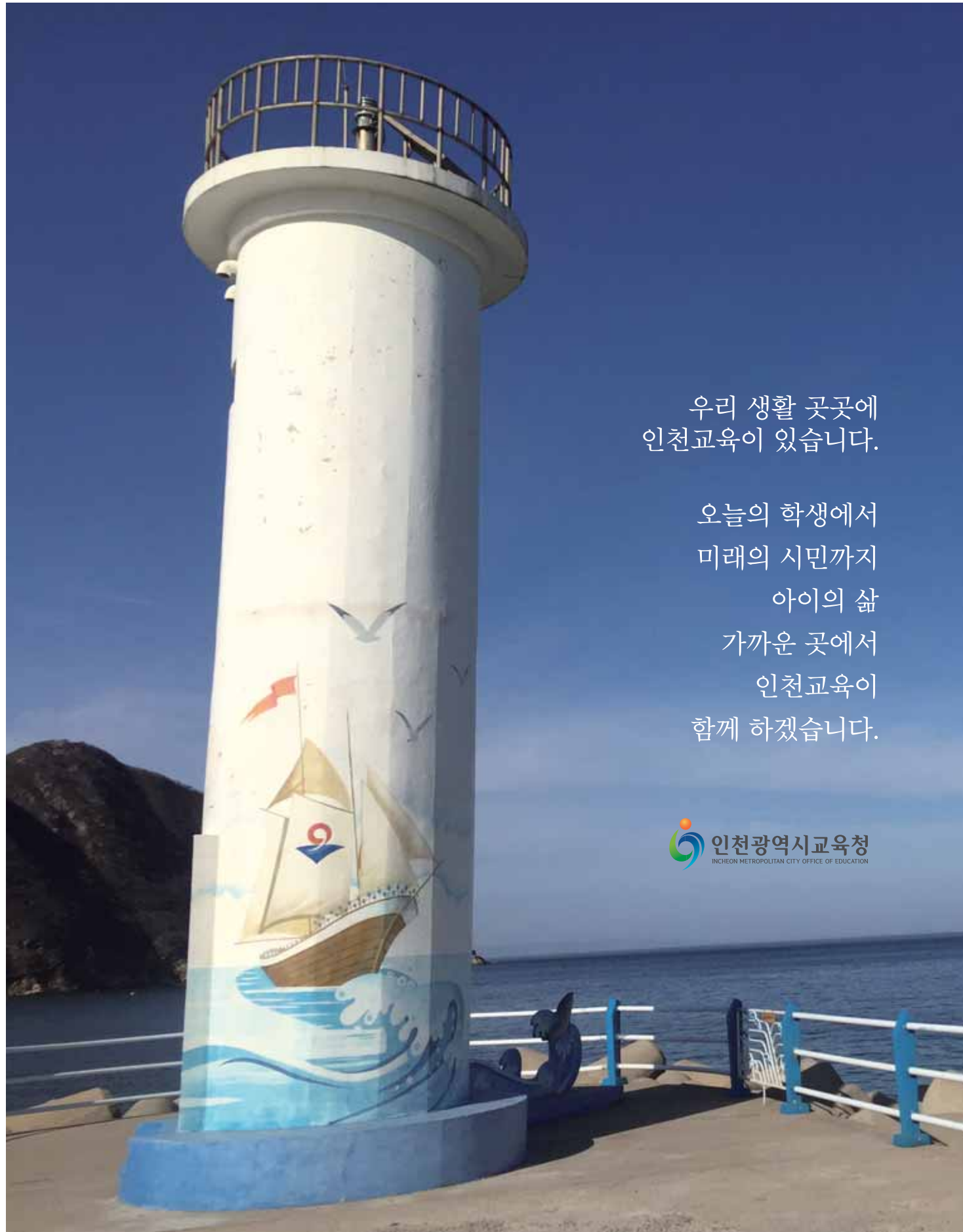




우리 생활 곳곳에
인천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의 학생에서
미래의 시민까지
아이의 삶
가까운 곳에서
인천교육이
함께 하겠습니다.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2018 여름 제13호

두근두근 세상 밖으로,
어디로 갈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Incheon @educat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제13호



표지 이야기	04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모두의 힘을 합하다 - 섬에서 묻어나는 과학의 향기
특집	08	우리들은 1학년, 모두 모두 안전하게 생활해요
안전한 생활	10	교사가 그린 최초의 교과서 <안전한 생활>
	12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 부모 - 멋지게 살아가는 학생, 자녀
	14	'안전지대를 지켜라', 안전교육 재미있고 안전하게
학교 돋보기	16	가상현실 속 재난 경험, 무섭지만 할 수 있어요 - 계산여중
	18	바람~ 바람~ 바람~ 핵심은 바람이다 - 부평고
	20	연극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학교폭력예방교육 - 인천남중
	22	아이들이 묻고 변호사가 답한다 - 상인천초
	26	성장의 또 다른 이름 '봉사'로 나만의 세계를 넓히다 - 상정고
정보	28	미세먼지, 이렇게 대응합니다.
	30	아동학대! 우리의 무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34	학중,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캠페인	38	그릿(GRIT),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힘
	42	아이의 독립성을 신장시키는 스웨덴 교육
학교그리기	44	제7화 출타동시
인천 역사 이야기	46	자유공원을 얼마나 아시나요?

발행일 2018년 6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우삼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편집인 공보담당관 김문곤
기획 및 편집 김민경, 강경은, 김진철
사 진 서주희, 이예슬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전 화 032-420-8125
편집디자인·인쇄 중앙프린텍(T. 032-883-8195)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 2018-0051



Cover Story

두근두근 세상 밖으로, 어디로 갈까?

대한민국 최북단 대청도에서 작은 계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가득한 도심, 풀냄새 그윽한 농촌, 바다향 불어오는 섬... 멀고 가까움을 떠나 인천의 모든 곳에서 자라나는 설레임과 호기심이 오늘의 행복과 미래의 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 **이예슬** 교육홍보팀



<< 인천교육소식지 바로보기

독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인천교육소식"(gongbo@ice.go.kr)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 의견 선정해 소개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인천교육소식(http://www.ice.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기사,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모두의 힘을 합하다

교육홍보팀 사진/이예슬

비바람이 잠잠해지고 며칠 만에 배가 섬으로 들어가는 날이었다. 인천항에는 해병대, 관광객, 주민들 틈에 과학교수, 선생님들이 함께 있다. 각자의 집은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고 나누기 위한 과학실험도구로 묵직하다. 멀리 포항에서 오신 포항공대 김도연 총장님과 임근배 교수님도 일찌감치 배에 탑승한다. 선생님들은 체험도구들을 챙기며 점검에 집중한다. 인천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온 담당자들은 하나하나 확인하고 새벽부터 준비에 분주하다. 인천항을 출발하는 배에는 각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미 가득했다.

어릴 적 꿈을 물어보면 ‘과학자’는 빠지지 않았다. 공상과학만화에서 로켓을 만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척척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과학자이다.

섬에서 묻어나는 과학의 향기

2018 찾아가는 섬 과학축전



포항공대 김도연 총장



백령도에서 열린 금요일에 과학터치 포항공대 임근배 교수편



대청초 과학놀이마당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를 다니며 점점 멀어진 과학은 어느새 꿈의 목록에서 사라지고 만다. 어렵고 무거운 과학, 멀고 먼 과학이 되어버린다. 과학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과학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영향력을 실감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과학이 멀기만 하다는 인식은 여전하다. 사회적으로 과학을 공유할 수 있는 지적 여건도 성숙되어 있지 않다. 과학과의 만남의 기회가 적고, 소통을 위한 이해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쉽게 즐기는 과학체험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번 인천시교육청의 찾아가는 섬 과학축전은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했다.

‘찾아가는 과학, 꿈을 주는 과학’이 대청도와 백령도를 찾아갔다. 백령도는 우리나라 최북단의 섬으로 인천보다 북한에서 더욱 가까운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인 백령도는 해안 절벽 곳곳에 해병대의 포구가 있어 분단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백령도는 ‘평화와 안전의 땅’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립없는 화해의 섬인 백령도는 전쟁 중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했던 역사적 사건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청도는 1,340명, 백령도는 5,600명(2016. 웅진군청 세대현황 통계)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초중고 학생은 총 460여명(대청도 72명, 백령도 393명)이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 곳의 학생들에게 찾아가 과학을 어렵고 무겁게 느끼지 않고 즐겁고 쉽게 즐기기 위한 강연과 체험교실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과학, 꿈을 주는 과학

첫날 대청중·고등학교에서는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과학기술: 미래를 여는 열쇠’를 주제로 명사 과학특강을 했다. 학생, 교직원, 해병대 장병 등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병대 청년의 질문에 총장님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배에게는 어떤 바람도 우호적이지 않다. 확실한 목표를 가져라, 목표는 자주 변화해도 좋다.”라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도전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강연에 이어 대청초등학교에서는 쉽고 재미있는 과학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과학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음날 백령중·고등학교에서는 임근배 포항공대 교수가 ‘나노 그리고 바이오’를 주제로 과학특강을 실시하였다.



이 강의는 금년부터 인천 지역에서 실시하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었으며, 2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가하였다. ‘클수록 좋다? vs 작을수록 좋다?’의 크기효과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나노, 바이오산업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임근배 교수는 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주었다.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되세요. 싹이 틀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싹이 트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많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공부는 경험을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보면 내 꿈이 살짝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령도 과학놀이마당 - 과학완구와 과학의 원리

더 가까이 즐기는 과학

이날 오후 1시부터 과학놀이마당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불이 번쩍! 팝업카드 만들기, 날아라 드론, VR체험, 과학의 원리를 알아보는 MBL을 이용한 심장박동 측정, 과학완구, 오조봇, 3D 펜으로 열어가는 세상, 다채로운 수학 체험활동 등 13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눈은 과학의 호기심으로 가득했으며, 처음으로 접해보는 활동에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행사에 참여한 백령고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백령고 과학놀이마당 - 드론의 비상

정성유 학생

뱃지를 스스로 꾸밀 수 있고 액세서리처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원리가 재미있었어요. 이런 체험활동이 매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강의만 들을 때보다 훨씬 실감나고 원리도 더 알아보고 싶어져요.

강승희 학생

저는 오늘 드론을 직접 움직인 것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삼각좌우, 수직으로 손쉽게 비행하는지 프로펠러의 방향을 조정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조연지 학생

3D펜을 처음 사용해 봤어요. 유튜브에서 본 적은 있는데 실제 해본적은 없어서 과연 가능할지 알고 싶었는데 오늘 실제로 해보니 영상으로 본 것과 큰 차이가 있었어요.

과학놀이마당 행사에는 인천지역 13개교 선생님들의 참여가 있기에 가능했다. 선생님들은 직접 과학교구를 준비해오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날아라 드론’ 코너를 담당하던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정영도 선생님은 “저도 드론이 신기해서 직접 조종을 해 보고 싶었는데 학생들은 얼마나 더 하고 싶겠어요? 드론에 담긴 많은 과학적 원리들이 있지만, 직접 드론을 조종해본 다음 어떻게 드론이 이렇게 움직일까? 그 원리는 무엇일까? 등의 질문을 가지고 궁금한 부분을 스스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찾아서 해결한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진로교육이고 과학교육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기로 몸 컨디션도 좋지



인하사대부중 정영도 선생님과 북포초 오영서 학생

66 섬으로 찾아와준 과학교수, 선생님들의 마음은 과학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주고, 꿈을 향해 달리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99

않았지만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조종기를 잡고 드론을 조종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힘이 나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과학부스활동에 7개 이상 참여한 학생들은 가오리연을 선물로 받아 운동장에서 연날리기를 했다.

백령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도와 하늘에 가득히 가오리연을 날렸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학부모님은 모두가 하나되어 어우러져 놀 수 있는 점에 행복해 했다.

마지막으로 저녁시간에는 인천연안초등학교 우석민 교사의 천체관측교실 수업이 실시되었다.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은 천체 이론수업을 들은 후 운동장으로 나가 밤하늘에 나타난 북두칠성, 오리온자리, 북극성, 스피카 등의 별자리를 관찰하였다. 학생들의 함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으며, 이날 백령도는 온통 과학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① 백령고등학교 박성민 교장선생님과 함께 연날리기
② 백령도 과학놀이마당 - 천체관측교실



섬에서 묻어나는 과학의 향기 ‘2018 찾아가는 섬 과학축전’은 많은 기관이 힘을 합했기에 가능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한국연구재단, 인천대학교, 포항공대, 대청초, 대청중고, 백령초, 북포초, 백령중고, 인천연안초, 남부과학놀이마당 추진단의 12명의 선생님들 등 섬지역 학생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려는 많은 교육자들이 힘을 모았기에 실현되었다.

섬으로 찾아와준 과학교수, 선생님들의 마음은 과학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주고, 꿈을 향해 달리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우리나라 최북단 섬이라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 가까이 다가와 학생들의 잠재된 마인드를 충족해주고 꿈꾸게 한 것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모두가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들은 1학년, 모두 모두 안전하게 생활해요

유철민 인천신현초등학교 교사



“1학년은 그냥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니?”

“그러니까 각자 개인
방송을 해. 내 말을
제대로 듣는 애가 없어.”

교직 생활중 처음으로 1학년을 맡아야 할 때, 1학년 담임 경험이 있는 내 친동생이 해 준 말이다. 대부분의 교직 생활을 고학년 담임으로 보낸 나에게 1학년은 그야말로 미지의 대상이었으며 불안함 그 자체였다. 10년이 채 안 되는 경력이지만 새로 맞이할 학생에 대한 불안함은 없었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1학년 담임을 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그림 몇 개만 그려져 있는 교과서를 보며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더욱이 새로 생긴 ‘안전한 생활’ 교과서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학교 적응 기간이 지나고 안전한 생활을 아이들과 공부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은 기우였음을 알 수 있었다.

놀이 배우는 안전교육

학생들은 유치원에서 안전에 관련하여 배운 것들도 있었고 안전한 생활이 왜 필요한지 어렵듯이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조금만 준비를 한다면 얼마든지 몸으로 기억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었다.

먼저 학교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실시하였다.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것만큼이나 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교과서에서도 교실과 운동장, 학교 시설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있고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고 각 시설물과 교실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역할극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놀이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5단계의 방법(멈춘다-살핀다-손을 든다-확인한다-건넌다)을 외우도록 하는 것은 처음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기차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체험해 보도록 하였다.

신문지를 이용하여 기차 모형을 만들고 적절한 속도로 걷기, 주변을 살피며 걷기, 교사의 정지 신호에 멈추기 등을 연습하였다. 그리고 놀이 활동을 통해 선생님이 초록색 종이와 빨간색 종이를 들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이후 횡단보도 건너기의 5단계를 배우고 직접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도록 체험하였다. 반복적인 학습과 놀이를 통한 습관 형성으로 아이들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었다. 또한, 안전한 생활 교과서의 성폭력, 실종 안전 교육은 경찰서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각 학교에서 경찰서에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는데, 안전과 관련된 영상과 함께 실제 사례를 보여주다 보니 어린 학생들도 집중하여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 분들이 직접 오셔서 지도를 하다보니 인기 스타를 보는 것처럼 열광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안전교육

안전한 생활 교과서를 지도하면서 느낀 것은 이론이 아닌 ‘체험형’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몸으로 익히고 안전한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교과서 구성의 목표이자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선생님 이제 횡단 보도를 건널 때는 꼭 주위를 살피고 건너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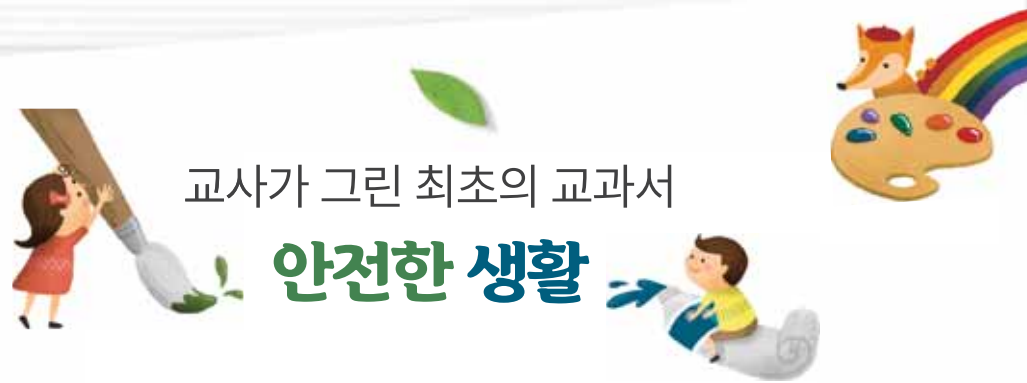
안전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교사-학부모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비로소 안전한 학교가 이루어진다. 안전한 생활 교과서를 잘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학교가 되길 소망한다.



① 신문지 기차놀이를 배우는 교통 안전교육
② 사전에 구명조끼 사용법을 배운 후, 스스로 입고 체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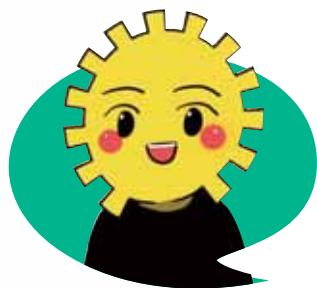


경찰관이 직접 들려주는 안전교육



교사가 그린 최초의 교과서 안전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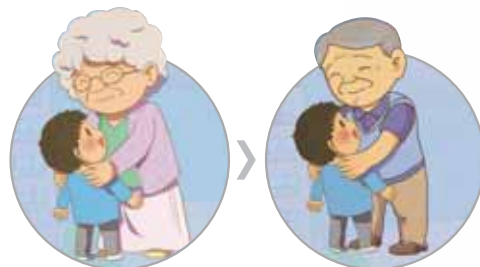
정다운 인천석천초등학교 교사



저는 '해시브라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 귀퉁이에 낙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카투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매일 아침 감자요리인 '해시브라운'을 먹었어요. 그때는 지겹던 음식인데, 전역하고 후에는 그리워졌습니다. 내 그림도 그렇게 그리워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시브라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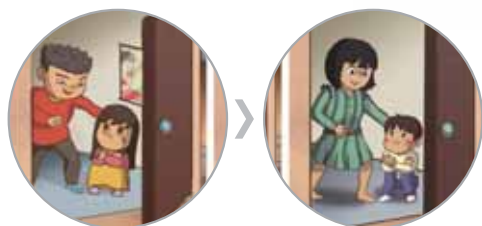
남학생이 여학생으로 변경



할머니에서 할아버지로 변경



보호자에 아빠도 추가



누나-남동생으로 변경



남녀의 고른
역할을 고려한
삽화 수정

교사가 쓰고, 그린 최초의 교과서 <안전한 생활>

우리나라 초등 교사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단체가 있다. '참쌤의 콘텐츠 스쿨'(이하 참쌤스쿨)이다. 참쌤스쿨은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모여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모임이다. 그 참쌤스쿨에 교육부 <안전한 생활> 삽화 의뢰가 들어왔다. 나를 포함한 8명의 선생님이 교과서 삽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현직 교사가 삽화를 100% 맡아서 제작한 국정 교과서는 <안전한 생활>이 최초라고 한다. 교과서 집필과 삽화를 모두 교사가 직접 한 것이다. 교사가 삽화를 그리므로 집필자의 의도 파악과 소통도 원활했다.

100개의 폴더, 1000개의 파일, 1년간의 작업 과정

교사인 우리가 직접 가르치게 될 교과서이므로 수업 시 적용할 발문까지 생각하며 삽화를 그렸다. 삽화 속 인물의 옷 색, 머리색까지 세세하게 골랐다. 현장 경험을 살려 수업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작업했다. 집필진의 원고가 완성되면 삽화가에게 할당된다. 나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폭력 분야 삽화를 맡았다. 원고를 보고 삽화 초안을 스케치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집필 선생님에게 스케치를 보내 원고의 의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집필 의도가 반영되도록 스케치가 수정되면 담당 교수님에게 확인을 받는다. 피드백을 받고 수정이 완료되면 스케치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인 펜선 작업으로 넘어간다. 펜선 이후에도 거듭 집필진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수시로 받는다. 그 후 채색 단계로 넘어간다. 2016년 3월에 시작해서 2017년 1월까지도 그림을 수정했다. 총 17회의 수정과 제출이 반복되었고 그 사이 만들어진 폴더는 약 100개, 파일은 천여 개가 넘는다.

작업 과정에선 각기 개성 있는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 삽화가 8인의 그림체를 통일하는 것이 어려웠다.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르는 것이 더 어려웠다. 이 부분은 내 스타일로 하면 더 잘 표현될 것 같은데, 교과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림체를 준수하기 위해 포기할 때가 종종 있었다.

이슈와 수정, 보람

삽화가로서 전문한 경험은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림 속 아이가 왼손잡이인지까지 따지는 교육부의 엄격함 앞에선 여러 번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제까지 다른 작업들을 할 때는 삽화가의 역량과 표현 센스를 믿어주었고, 결과물에 대해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 하지만 교과서 작업을 할 때는 결정과정에서 어렵게 피드백을 받아 채색까지 완성된 그림도 다시 처음의 스케치 단계로 되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전에 없던 힘든 작업을 했기 때문일까, 교과서가 완성되고 그 감회는 남달랐다. 만족할 때까지 무한 수정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일반 삽화가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 단편을 경험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현직 교사가 그린 국정 교과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어 보람 있었다.

2017년 초판이 발행되고 그 해 겨울, 추가 수정 의뢰가 들어왔다. 성폭력 부분에서 남·여 역할을 고루 섞는다는 의도였다. 친척 간 가정 성폭력 장면에서 가해자-피해자가 오빠-여동생에서 누나-남동생으로 바뀌었다. 좋은 신체적 접촉에서는 할머니가 아닌 할아버지로 변경되었다. 들판에 앉은 여선생님도 남선생님으로 바뀌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교사의 성비는 이미 스케치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세가며 정한다. 그럼에도 또 수정을 하는 것을 보면 성차별 이슈에 얼마나 신중을 기하는지 알 수 있었다.

텍스트가 적고, 이미지 위주인 <안전한 생활>은 저학년의 눈에 잘 맞춰져 있다. 다양한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체험을 통해 안전을 배울 수 있다. 이 자료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안전 요소에 대하여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이 생각해 보고 활동해 볼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의미있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 부모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학생, 자녀

김성환 조현초등학교 교사



빈 칸에 어떤 단어를 넣고 싶나요? But을 떠올렸나요?
많은 교사와 부모들이 실제로 But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왜 그럴까?

최근 많은 훈육과 교육의 흐름이 아이들에 대한 친절,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 아이의 감정 공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아이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부모와 친구들 이웃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다. 이런 구성원들이 함께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으로 세상은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최근 교사들 5만 명이 읽은 학급긍정훈육법과 전 세계 100만 명이 읽은 긍정의 훈육은 아이에 대한 따뜻한 사랑

과 공동체가 만든 약속과 일정을 존중하는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교육의 방법을 제시한다. 훈육이라는 딱딱한 표현 아래에는 아이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그 아이가 공동체의 질서와 일정들을 존중하도록 하는 단호함이 함께 한다.

긍정의 훈육에서는 빈칸에 And라고 적는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사랑의 방식인 것이다. 허용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닌 것이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닌 것이다. 아이와 적당한 경계를 존중하고 아이가 공동체의 규칙을 존중하며 타인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와 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긍정의 훈육은 아이에게 친절하며 단호한 방법으로 소속

「 긍정의 훈육을 공동으로 창시한 제인넬슨과 린롯은 다섯 가지 원칙으로 긍정의 훈육을 설계했다. 」

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기술을 알려주며 아이가 자신의 힘을 유용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훈육방식이다. 나는 2012년 원서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line)을 읽었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훈육 방법이 가능할지를 저자이자 창시자인 제인넬슨에게 이메일로 물어보았고 제인넬슨은 영국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나를 초대했다. 그때부터 제인넬슨과의 긍정의 훈육 여행이 시작됐다. 책의 내용보다 사실 워크숍은 더 재밌고 강력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교사들을 위한 학급긍정훈육법, 학급긍정훈육법 활동편을 번역 출판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드디어 부모들을 위한 긍정의 훈육 청소년편(번역:김성환, 정유진)을 번역 출판하게 되었다.

처음 긍정의 훈육을 적용한 2014년 아들 태운이는 3학

Positive Discipline

- 1 장기적으로 효과적인가?
- 2 친절하며 단호한가?
- 3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가?
- 4 아이가 힘을 유용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가?
- 5 소속감과 자존감을 길러주는가?



년, 딸 은서는 2학년이었다. 첫째 태운이는 다툼이 많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었다. 그런 아들이 마음이 들지 않은 적도 많았다. 외향적이고 도전적인 아빠, 그러나 아빠의 기대와 달리 아들은 내성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긍정의 훈육을 만나며, 아들에게 마냥 기대하지 않고 아빠의 바람을 정확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긍정의 훈육을 시작했다.

지금 아들 태운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들을 보면 참 대견하다. 그리고 긍정의 훈육을 만나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 나에게 긍정의 훈육이 뭐가 좋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다. 의사가 의술이 다양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되듯,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만나게 된다. 무엇보다 부모인 당신이, 교사인 당신이 더 멋진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다.

공부를 원하신다면?

원격연수과정

<http://semi.edunet.net/project>



참고 사이트
대한민국 긍정훈육 협회 <http://pd-kore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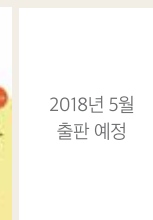
도서 4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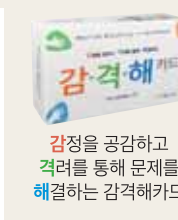
긍정의 훈육
0~3세 편



긍정의 훈육
4~7세 편



긍정의 훈육
청소년 편



감·격·해
카드



안전교육 재미있고 안전하게!!

정영찬 인천간재울초등학교 교사



안전교육 ‘어떻게’를 고민하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교육계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시청각 자료로 아이들을 수업했지만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어른들이 보기에다 지루한 동영상 아이들을 제대로 받아들이 리 없었다.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안전교육을 고민한 끝에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는 보드게임을 떠올렸다. 동료 교사와 함께 게임과 교육을 융합해 흥미를 더하고 아이들의 창의성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개발하자고 의기투합하였다. 딱딱하고 지루한 방식에서 벗어나 재미있는 안전교육을 하고 싶어 1년 6개월간 고민한 끝에 안전교육용 보드게임인 ‘안전지대를 지켜라’를 개발했다. 제작과정이 쉽지 않았다. 전 학년이 즐길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문제였다.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 중 ‘임시 테스트’를 실시해 부족한 내용을 보완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안전지대를 지켜라’가 완성됐다.



보드게임은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해 카드에 들어갈 74개의 퀴즈를 만들었고 이미지도 직접 그려 의뢰했다. 게임에 들어갈 내용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아이들에게 게임을 해보도록 하고 반응을 살폈다. 1년간 수정 작업을 거쳐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KC) 인증마크를 받아 2015년 최초 출시되었다. 출시 이후, 아이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주변 동료교사들 또한 안전교육에 대한 고민을 덜었다고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안전수칙이 아닌 공부와 인지가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에는 방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게임을 재미있어 한다. 보드게임은 교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전국 600개 이상 학교에 배포됐다. 보드게임은 교육부 종합 대책 7대 안전교육 표준안과 동일한 콘텐츠를 개발해 초등학교 4개 교과와 중등 6개 교과, 고등 5개 교과, 유치원 2개 영역 수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 수업도 가능하다.

안전보드게임 - 즐겁게 익히고, 자연스럽게 배우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순서는? “정답! 의식확인, 도움요청, 흉부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카드 속 퀴즈를 맞춘 아이는 안전지대의 사다리를 파괴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보드게임은 창의력·논리력을 길러주고 기상 여건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놀이라 아이들에게도 유익하다. 안전교육과 접목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수월하게 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안전지대를 지켜라’ 보드게임은 2~3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13개의 안전지대에 사다리를 연결해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이 승리한다. 74개의 안전카드에 생활·교통·폭력 등의 안전수칙이 담겨있으며 안전지역과 퀴즈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드에 쓰여진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어야 게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대방의 사다리를 뺏고 싶을 경우 소유하고 있는 안전카드에서 문제를 골라 질문하면 된다. ‘배에 탑승했을 때 미리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곳은?’, ‘친구가 나의 엉덩이를 잡았어요, 성폭력일까요?’, ‘담배의 유해 성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을 한 가지 말하세요’와 같은 질문에 정답을 맞히면 지대에 연결된 사다리 하나를 파괴할 수 있다.

게임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이벤트 카드도 사용 가능하다. 황금 사다리 카드, 안전제일 카드, 점정 사다리 카드, 파워카드 등이 있으며 점정 사다리 카드의 경우 원하는 상대방에게 제시해 1회 휴식을 제안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카드 속 퀴즈를 맞히면서 상대방이 차지한 안전구역을 빼앗아 나간다. 퀴즈에는 생활·교통 안전, 응급처치, 학교폭력 등 다양한 주제의 내용으로 문제, 정답과 함께 해설도 실었다. 게임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안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안전! 누구나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평상시 생활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대처 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안전지대를 지키기 위한 전력을 발휘해 사고력도 함께 키워보면 좋을 듯 하다.

How to Play

- 1 가위바위보를 통해 순서를 정해 안전카드를 잘 섞어 5장씩 나눠 갖고 남아있는 카드는 판 위에 올려둔다.
- 2 게임을 하면서 안전카드를 내려놓거나 새로운 카드를 가져올 수 있다.
- 3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 사다리로 연결 가능한 두 개의 지대와 관련된 카드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사다리를 건설할 수 있다.
- 4 한 지대의 두 개의 사다리가 건설되면 안전 ‘말(스톤)’을 설치해 영역을 표시한다.
- 5 안전지대를 차지하려면 사다리 과반수를 건설해야 한다.





가상현실 속 재난 경험,
무섭지만 할 수 있어요!

4D 체험형 안전교육



유정은 계산여자중학교 교사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 말은 참 쉽고 간단한데 아무리 찾아도 매뉴얼은 없고,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았다. 심폐소생교육은 기구를 사서 실제 해보면 되지만 화재예방교육을 하겠다고 불을 낼 수도, 지진대피 훈련을 하겠다고 지진을 일으킬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안전 체험을 하겠다고 외부 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체험 장소도 다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협소하다. 안전교육을 위해 모든 학생들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이동하다 보면 오히려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

이러니한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학교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했다.

천 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실속이 있다.

안전교육은 안전에 관한 규칙을 이론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즉, 안전교육은 학생들이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형 안전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가상현실 또는 4D 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을 경험하다.

선박 침몰, 스포츠센터 화재, 포항 지진 등 최근 우리 사회에 크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고와 재난들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박을 직접 타거나, 지하철을 탄 상황에서 재난을 경험하고 대처방법을 익힐 수는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다. 학생들이 가장 신기해하고 관심 갖는 가상현실 기술과 4D 실감형 콘텐츠를 안전교육과 접목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을 체험하며 터득함으로써 안전에 관한 기초 의식을 심어 주었다.

전교생이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4D 체험형 안전교육은 체육관과 같은 넓은 장소만 있으면 컴퓨터 영상과 플랫폼 기기를 이용해 2개 학년 정도가 2시간에 걸쳐 큰 어려움 없이 다양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어 가성비가 높은 안전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학교는 2017년 7월 6일 2시간에 걸쳐 1, 2학년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안전체험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화재진압 훈련용 입체 시뮬레이션 소화기로 화재예방 교육
- VR기기를 통해 선박사고 시 대피요령을 익히는 VR 안전교육
- 심폐소생술(CPR) 시뮬레이터와 애니 마네킹을 이용한 응급처치
- 지진강도별 4D체험(모션플랫폼 연동) 및 대피요령 체험
- 지하철 화재 대피요령 VR체험

체험하기 힘든 상황을 구현한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다.

컴퓨터 게임과 영상에 익숙한 학생들이 재난 안전사고 상황을 영상과 더불어 진동, 바람, 스모그 등 오감을 자극하는 4D로 느끼게 된다. 실제 재난이 닥친 것과 같은 상황을 체험하면서 두렵고 당황하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 다음으로 대피요령을 배우면서 단계별로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체험으로 배우게 된다. 위급한 상황과 감정을 느껴보고 탈출을 경험해 봤던 것이 학생들에게 재난에 좀 더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매우 흥미 있어 하고 자발적으로 더 체험하려고 한다는 점이 좋았다. 다만 한 학년을 45분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한 명의 학생이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정을 모두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다. 결국 방과 후에 원하는 학생들에게 체험을 개방하여 진행하였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험을 해 본 학생들을 인터뷰 해보았다.

“지하철 화재나 배가 침몰한 상황이 실감나서 너무 무서웠고, 처음에는 당황하여 헤매게 되었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이 닥치면 배운 순서대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진강도를 의자에 앉아 경험해 보니 진도 3부터는 몸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강도가 세지면서 물건들이 떨어지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얼른 머리를 안전하게 감싸고 건물 밖으로 건물과 되도록 멀어지게 탈출해야 해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받은 후에 직접 실습을 하면서 몰입해서 정확하게 해볼 수 있었고, 직접 소화기를 들고 컴퓨터 화면을 쏘아서 화재를 진압하는 체험도 했어요. 학교에서 안전에 대해 설명만 듣고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대처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가상 현실(Virtual Reality)과 4D 체험 안전교육은 실제 상황을 그대로 구현하여 생생하게 경험하고 몰입감과 체험감을 높여 실제상황에서 대처할 방안을 몸으로 체득하는데 유용한 교육 방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은 지금, 직접 체험할 안전체험관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시설이 하루 빨리 개관하여 전체학생이 실제상황에 가장 가깝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는 바라고 있다.

인천학생안전체험관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2018년 하반기까지 3개 학교(천마초, 조동초, 해서초)에 교실 2실 규모로 구축한다.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전체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학생안전체험관’(가칭)을 2019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바람~ 바람~ 바람~ 핵심은 바람이다

우리 학교만을 위한 진짜 안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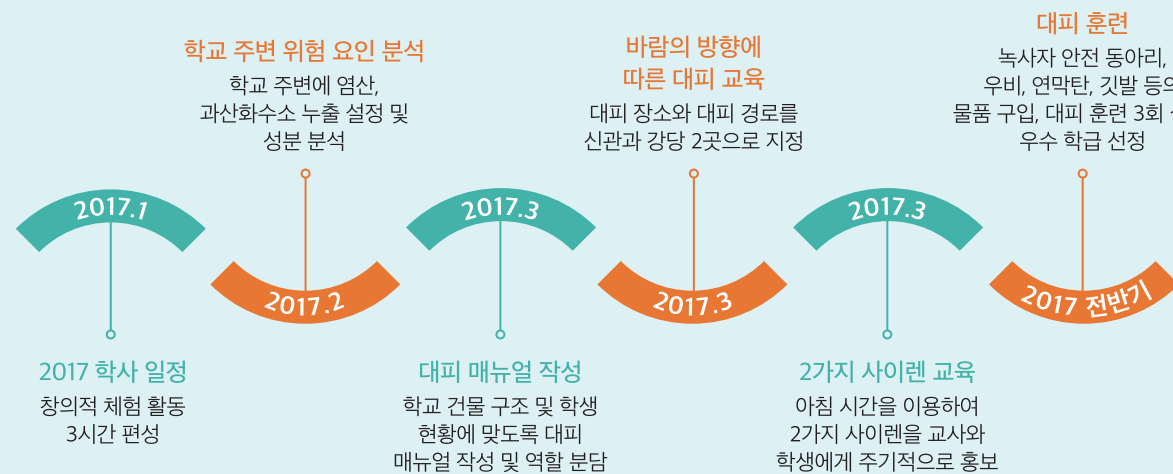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요구가 중시되고, 학교 내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증대하였으나 학교가 처한 환경적인 특성에 따른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부평고등학교 산업단지화 및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단지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2016~2017년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화학사고 발생 대피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산업단지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키우고자 했다. 우리 학교에서 개발한 화학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과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장여임 부평고등학교 교사



우리 학교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 경로를 습득하고, 둘째,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를 습관화하며, 셋째, 3회의 대피 훈련 프로그램 실시로 내면화하고자 하였다. 2회는 예고 대피 훈련, 1회는 무예고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다. 화학사고 대피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절차와 같이 진행하였다.



학사 일정을 수립할 때 화학사고 대피 훈련 3시간을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으로 확보하여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였다. 우리 학교 주변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화학물질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지 분석하였다. 그 중 ‘염산’과 ‘과산화수소’가 누출된 상황을 가정하고, 두 가지 물질의 특성을 분석한 후 본교의 건물 구조와 학교 현황에 맞도록 대피 매뉴얼을 만들었다. 화학 물질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지므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대피 장소와 경로를 달리하는 2가지 매뉴얼을 만들었다. 아침 수업 전 방송을 통해 바람의 방향에 따라 2가지 서로 다른 사이렌을 주기적으로 들려주어 사이렌을 구분하도록 했다. 대피 훈련에 대한 안내도 하였다. 화학물질 피부 침투 방지를 위해 비닐 우비를 착용하고, 대피 장소에서 방독면도 착용하도록 하였다. 대피의 효율성을 위해 반별 깃발을 지급하여 깃발로 반의 위치, 집합 완료 등의 사인을 하였고, 연막탄을 이용하여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녹사자 학생 안전 동아리 학생들과 교사를 1:1로 매칭하여 대피 훈련 시 학생 리더를 양성하기도 했다.

우리 학교만을 위한 대피 훈련 워크북

화학사고 발생 시 실천 역량과 함께 안전 지식을 내면화하기 위해 워크북을 제작하여 전교생이 작성하도록 한 후 우수 학생과 학급에 시상하였다. 학교 주변 위험 지도 만들기, 화학 물질의 특성, 대피 경로 숙지하기, 위험 상황 대피 매뉴얼 만들기, 소감문 작성하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화학사고 대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학생들의 산업단지 안전 지식 및 안전 실천 능력이 향상되었다. 더불어 교내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및 보완, 학부모, 학생 교사 네트워크 구축 등 안전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안전이 기본이 되는 계기가 마련된 교육활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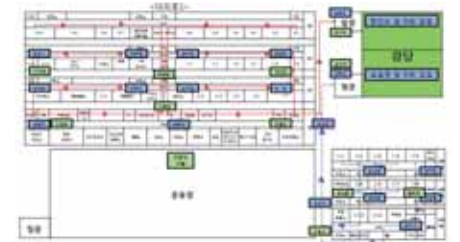


연막탄으로 바람의 방향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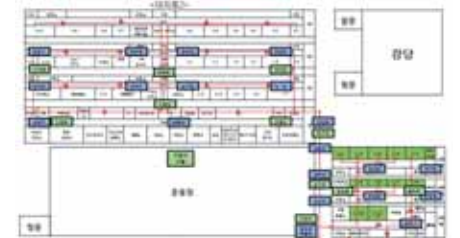


화학물질 피부 침투 방지 비닐 우비 착용

<바람의 방향에 따른 대피 매뉴얼>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올 경우 - 강당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올 경우 - 신관



학교 주변 위험 지도 만들기



위험 상황 대피 매뉴얼 작성

연극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송주미 인천남중학교 교사

3학년 부장으로 지내며 쉽지 않았던 것은 단 연 생활교육이었다. 중학생, 게다가 남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학년에서 어떻게 윤리적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동학년 교사,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실천하며 1년을 보냈다. 1박 2일 야영, 스포츠 시간 공동체 놀이, 학년 자치 회의, 학급 서클 회의, 즉흥 공감 연극, 학기말 행사 등을 실천하며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나누고, 협력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했다. 그중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활동이었던 ‘즉흥 공감 극장(Playback Theatre)’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극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교육방법이다. 연극이 자기를 찾고 타인과 공감하며 주변의 세계를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초대했던 연극은 즉흥 공감 극장이었는데, 관객 중 한 명이 자기의 이야기를 배우들과 관객 전체에게 들려준다. 그러면, 배우들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겪은 상황과 감정,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즉흥으로 재현한다. 관객들은 배우들이 펼치는 즉흥극을 보며 ‘이야기를 말한 관객’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감상하며 깊이 공감한다.



PLAYBACK THEATRE

처음 즉흥 공감 극장을 접한 것은 2017년 가을, ‘통합예술교육공동체 포이에시스(이하 포이에시스)’의 공연이었다. 즉흥 연극이 어떻게 공감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의아했다. 관객들의 이야기로 극이 진행되기에 관객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긴장을 푸는 위밍업이 진행된다. 편안하게 소리도 함께 내보고, 관객의 한 문장의 말에 배우들이 즉흥으로 감정과 생각을 간단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중년의 아주머니가 무대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 속 깊이 있었던 인생의 허무감, 자신을 잃어버린 상실감, 깊은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배우들은 그 이야기로 즉흥 연기를 했다. 자신의 외로움과 허무함의 모습을 연극으로 마주한 아주머니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며 울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객들도 공감하며 울고 있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허무감과 외로움, 나 자신을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닐까 싶었다. 즉흥 공감 극장은 말이 전하지 못하는 이면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참여하는 모두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생활교육의 시작은 ‘공감’이다. 어쩌면 생활교육의 끝도 ‘공감’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생활교육의 시작과 끝이 아닐까?

2017년도 학년 혁신을 진행하면서 즉흥 공감 연극을 꼭 한 번 우리 학년의 학생들에게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직접 극으로 자신을 마주하고 친구를 이해해보고 그것을 공감하며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11월 중순 모든 시험이 끝난 학기말에 극단 ‘포이에시스’를 학교로 초대하였다.

‘남중 3학년 학생들 165명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마음 속 사례들을 꺼내어줄까?, 학교 강당 무대는 괜찮을까?’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함께 쌓아왔던 의리가 있었는지 학생들의 관람 태도는 훌륭했고 이야기도 잘 해주었다.

내가 먼저 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년 초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낯선 학생들과의 어색함, 수업의 긴장감을 애기하는데 말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했다. 그리고 배우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니 몇몇 학생들은 눈물도 흘렸다.

그리고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4~5명이 차례로 무대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다.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학생, 사마귀 유충을 관찰하다가 결과에 실망한 학생, 학급 서기 역할을 부탁하며 자신을 인정해 준 담임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학생, 아버지에게 혼나고 기분이 안 좋아 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그날따라 게임이 잘 되어 기분이 정말 좋았다는 간단한 말이 즉흥 공감 연극으로 펼쳐졌을 때,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과 생각들과 내면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학생도, 관객석에 앉아 친구의 이야기에 자신의 마음과 같은 지점들을 만난 학생도 함께 위로받은 치유의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을까? 표면의 언어 이면에 있는 상황과 맥락, 감정과 생각을, 행복과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만약 학급, 학년 생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표현과 행동을 했을 때, ‘저 친구는 이런 마음이었을거야’, ‘저 친구 오늘 조금 표정이나 행동이 평소랑 좀 달라 어디 아픈가?’, ‘저 친구는 이런 것 싫어하는데 피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학교라는 공간은 훨씬 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이고 학교폭력도 많은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이 윤리적 생활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흥 공감 연극에 사례를 내놓은 학생들은 그 후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학생은 졸업식에 선생님들 초상화를 그려드려 깜짝 감동 안겨드리기 작업에 착수했고, 담임교사에게 최고의 서기로 인정받은 학생은 다른 반 출석부까지 관리하기 시작했고, 사마귀 유충을 관찰하던 학생은 급기야 학교에도 들고 와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강제로 관찰을 강요(?)했다. 즉흥 공감 연극을 학기 초에 했다면 그것을 소재삼아 더 깊은 연결을 시도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가장 안전하다**는 마지막 말로 글을 마무리 짓고 싶다.

아이들이 묻고 변호사가 답한다

김동현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법률전담 변호사 사진/이예슬



상인천초등학교 5학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녕하세요.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을 전담하고 있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인천 동부 지역 관내 초등,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미리 질문을 받아 답을 해결해주고 교육이 끝난 후에는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아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의 답입니다. 예방교육을 하며 느낀 점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Q. (학생) 저는 친구랑 놀고 싶어서 장난으로 놀리고 툭툭 건드린 것뿐인데 이런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인가요?

A. (변호사)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장난과 폭력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장난이라고 하여도 그 장난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이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Q. (학생) 다른 학생이 먼저 욕을 하고 때려서 저도 욕을 하고 그 학생을 때렸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 와서 욕하고 때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못이 없지요?

A. (변호사) 아니요. 학생들은 먼저 다른 학생이 시비를 걸고 욕하고 때렸으므로 내가 만약 그에 대응해서 욕을 하거나 학생을 때린 경우에는 정당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비를 걸고 욕하고 때렸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욕하고 때리게 된다면 나 역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서 조치를 받게 됩니다. 폭력에 대응하여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지마'라는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생) 학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 폭력인가요?

A. (변호사)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2017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보면 학교폭력의 피해 장소가 학교 안은 66.6% 이고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경우는 26.6%로서 사이버 공간, 놀이터, PC방, 학원 등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생) 친구가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 옆에서 보고 있거나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모른 척 한 학생은 처벌을 받나요?

A. (변호사)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해서 학교폭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그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가만히 지켜만 본 경우에도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데 도와준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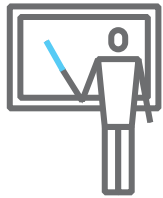
Q. (학생) 학교 폭력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나 조언, 일시보호, 치료 또는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하고 조치를 내려줍니다. 혹시나 이후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에는 또 다시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은 더 가중된 조치를 받게 됩니다.

Q. (학생)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학교에서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나요?

A. (변호사) 예방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 보면 학생들은 특히나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혹은 법원에서 어떠한 조치와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교교체, 전학, 퇴학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가해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하면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상인천초등학교 5학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장의 또 다른 이름 **봉사**로 나만의 세계를 넓혀갑니다!



상정고 교육봉사동아리 '하모니'

한가한 토요일 오전, 부평의 골목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들어온다.
늦잠자도 좋을 시간. 삼삼오오 모여앉은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에 열중한다.
인천상정고등학교 봉사동아리 '하모니'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과 함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를 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교육봉사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였다.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상정고 학생들을 만나보았다.

교육홍보팀 사진/서주희

강정민(3학년)_교육봉사 3년째

요르단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봉사라기 보다 '함께 배운다'라고 말하
고 싶어요. 저는 한글을, 제 친구는 아랍어를 가르쳐주거든요. 영화를 소재로 말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최근 '부산행'을 요르단 친구에게 소개해주었
고, 요르단의 유명한 영화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아랍어권에 가서 우리나라 미용업 관련
사업을 하는 꿈이 있어요. 사업을 하며 지구상에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지역사회 봉사
활동도 활발히 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르단 친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3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레듀이(2학년)_교육봉사 2년째

6살 때 몽골에서 온 저는 한국어를 익히며 겪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
국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다른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과학에서 DNA, RNA에 대
해 설명해주고 카렌에서 온 친구가 잘 이해된다고 했을 때 정말 보람있었어요. 과학
은 그 자체로도 어려운데 언어의 장벽이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저 스스로
더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구요.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
만 무엇을 하든, 가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가족이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길 바래요.



강주석(3학년)_교육봉사 3년째

기억에 남는 활동은 솔레노이드의 원리, 에너지변환장치, 전류의 세기 조절 등의
원리에 대해 카렌에서 온 텐끼타(부원중, 3학년)와 함께 공부한 거예요. 어려운 부분
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더 잘 이해되기도
했구요.

전 평소에 '에너지 앞에서 우리는 평등할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 빈곤
없는 세상을 위해 이웃과 함께 빛을 나눌 수 있을 일을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식량난, 전
쟁, 난민 등 세계적인 문제는 에너지로부터 오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해 난민이 발생한다는 사실
만 봐도 제 옆에 있는 텐끼타(한국이름 김기태)에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
야해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되고 원초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세계의 에너
지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김정현(3학년)_교육봉사 2년째

여기 올 때 기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싹'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도와
준다는 의미와 보람을 담고 있어요. 저는 예수퍼(부평여고, 1학년)와 멘토
멘티를 맺어 교육봉사를 하며 오히려 제가 배우고 느끼는 면이 많아요.
세상의 다양한 모습과 사람을 이해하는데 큰 자극이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일상에서의 불편함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 교육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사람
이 되고 싶어요.



민윤기(1학년)_교육봉사 1개월째

한국어의 높임말, 반말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가장 어려
워하는 부분이라고도 해요. 말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어 몸동작을 섞어가며 이해
하게 하고 외국에서 온 친구의 모국어를 제가 거꾸로 배운 후 이해해서 설명해 주
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이제 시작해서 쉽지 않고 스스로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제
가 살아가고 싶은 모습은 꿈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을 하는거에
요. 지금도 그렇게 살기위해 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아직은 시작단계라 저 스스
로 배우고 노력해야 할 점이 더 많아요.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mu\text{m}$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_{2.5}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mu\text{m}$ 이하의 먼지 ($2.5/1000\text{mm}$ 보다 작은 먼지)

PM₁₀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mu\text{m}$ 이하의 먼지 ($10/1000\text{mm}$ 보다 작은 먼지)

미세먼지의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흡입됨.
- 먼지가 몸 속으로 들어오면 면역 담당 세포가 먼지 제거 - 부작용으로 염증반응 : 천식, 호흡기(폐렴,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등), 심혈관계(협심증, 뇌졸중) 질환, 조기 사망률 증가 등

- | | | |
|--|-----------|-------------------------------|
| | 눈 | 안구 가려움증이나 염증 유발 |
| | 폐 | 염증을 일으키고, 기침과 천식 악화 |
| | 태아 | 성장 저하, 출생 후 뇌 신경 발달 저하로 지능 저하 |
| | 뇌 | 혈전을 만들고 세포를 손상시켜 뇌졸중, 치매 유발 |
| | 심장 | 산화스트레스 증가로 부정맥 발생 |
| | 피부 | 모공확대, 피부염, 알레르기 유발 |
| | 자궁 | 태반의 혈액 순환이 잘 안돼 태아에 영양공급 방해 |
-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 (석면, 벤젠, 벤조피렌, 술, 담배, 매연, 방사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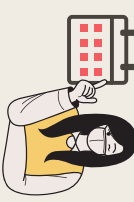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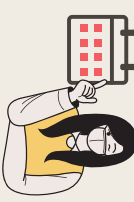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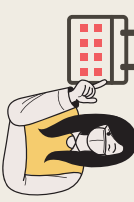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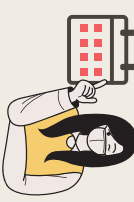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

황사는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흄모래로 주로 자연적 활동으로 발생. 갈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토양성분을 주로 포함한다.

미세먼지는 주로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하므로 황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진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미세먼지 PM _{2.5} (PM ₁₀) 농도별 대응방법			익일에도 “나쁨” 이상		1시간이상 지속		2시간이상 지속		2시간이상 지속	
단계	평 시 35이하(80이하)	고농도 예보 36 이상(81 이상)	고농도 발생 36 이상(81 이상)	주의보 90 이상(150 이상)	경 보 180 이상(300 이상)					
계획·보고	 실내수업 대체 사전계획마련 (실내체육, 수업시간조정, 휴업, 일정연기 등)	 예보 농도 변화 수시확인, 기관 내 전파	 대응 조치 실시 임시휴업시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	 대응 조치 실시 휴업결정시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	 대응 조치 실시 후 결과보고 (7일 이내,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수업	 현장학습 및 야외활동 시 실내 수업 대체 계획 준비	 다음날 수업 점검 (실내 수업 대체 검토)	 실외 수업 자체 또는 금지 (실내 수업 대체)	 실외 수업 단축 또는 금지 (실내 수업 대체)	 수업시간 및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환경관리 안내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PM ₁₀ 100μg/m ³ , PM _{2.5} 35μg/m ³) 준수	 보통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알림	 실내공기질 관리 (창문닫기, 물걸레질 청소 등) 조치상황 알림	 교내 식음 위생관리, 음식물 조리시 위생관리 강화, 상황공유, 대응요령 알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체					
행동요령	 보건용 마스크(식약처인증), 상배약(안약, 아토피연고, 인체일러 등) 비치, 담당자 지정, 대처방안, 대응조치 행동요령 지도	 학생대상 행동요령 (실외 체육활동 자체,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체, 깨끗이 씻기 등)	 학생건강관리(조기귀가, 진료)		 학생 건강관리(조치 안내 (외출시 마스크·보안경 등 착용, 깨끗이 씻기, 물·과일 섭취, 교통량 많은 지역 이동 자체)					
민감군 학생	 민감군 학생 현황 파악, 응급조치 방법 숙지 특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하여 대상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건강체크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예·경보 문자 서비스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 고객의소리 → 문자서비스 인천시청 → 참여 → 미세먼지 SMS신청	 ※ 2018.7.1. 개정 예고 주의보(90 → 75) 경보(180 → 150)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 인정						

아동학대! 우리의 무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우리 아이를 위한 착한 신고입니다.

박신자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016년 중 6월은 아동학대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된 사례가 총 2,891건(9.7%)로 가장 많았다. 2016년 초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및 탈출 사건을 시작으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수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잔혹한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연달아 발견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더욱 철저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다(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 2017).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아동학대 신고의식 고무를 위하여 정책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별 담당부서와 지역사회유관기관들(시청,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협력하고 있다. 신고 및 치료·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위(Wee)센터를 통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협력·지원하고 있는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박신자 관장에게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01 아동학대 징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동학대의 징후는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학대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거나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아동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아동을 관찰하면 쉽게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신체학대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외상 때문에 발견이 쉬울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 외상의 원인이 체벌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안전사고(부딪힘, 넘어짐 등)로 인한 것인지 바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먼저, 아동의 외상 위치와 상처모양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대한 보호자나 아동의 설명이 상처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마나 무릎 등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기기 쉬운 부위가 아닌 귓볼 뒤, 팔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성인에 물린 상처나 손톱에 긁힌 자국처럼 핏자국이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혹은 체벌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상처에 드러난 경우입니다. 특히, 화상 자국의 경우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 모양의 화상 자국(다리미 등) 등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의 특성이 산만하거나 부주의한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잦은 외상이나 다른 색의 멍이 많이 발견될 경우, 신체학대 징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서학대

정서학대 발견이 매우 어려워 아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대부분 아동의 행동을 통해 징후가 드러나는데 학대의 징후인지 아동의 기질이나 정신 병리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이 가정에 귀가하기를 거부하거나 극단적인 행동 양상(우울이나 조증), 파괴적인 행동 양상 및 과잉행동, 자해 및 자살시도, 좋지 못한 언행을 자주 사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폭언이나 모욕, 감금, 가정폭력 노출 등의 정서학대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방임학대

방임의 징후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이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의식주와 관련한 물리적 방임학대의 경우, 아동의 위생상태가 비위생적이거나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빨래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고 아동이나 옷에서 계속 비위생적인 냄새가 나는 경우,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고 다니는 등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경우 방임의 징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 내 환경이 매우 비위생적이거나 위생관련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이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의료적 방임), 학교에 임의로 보내지 않는 경우(교육적 방임) 행위도 모두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성학대

은밀하게 일어나는 성학대의 경우에도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는 징후가 보입니다. 부와 동행한 만 5세 아동이 성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은 주변인이 신고하여 성학대가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성놀이)을 통해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른을(남자, 여자)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두려워하고 평소와 다르게 어른에 대한 거부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섭식장애,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이거나, 악몽과 같은 수면 장애 등의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02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징후를 발견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침착하게 학대 징후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신체 학대 징후 발견 시, 아동과 보호자의 설명과 외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고 학대 징후로 의심이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 과도하게 반응하면 학대 정황에 대해 과장하거나 또는 위축되어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학대는 아동의 진술이 오염되면 법적 절차 진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동이 여러 차례 진술하게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상담을 하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학대의 경우 발견 상태 유지를 위해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씻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고 자세하게 캐묻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가 은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학대행위 의심자에게 신고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 시에는 아동의 안전과 신변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03 아동학대는 누가 신고하나요?

우리 인천에서 학대받던 아동이 가스배관을 타고 스스로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이웃이 해당 아동의 집에서 비명소리와 맞는 소리를 들었다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웃은 신고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3항). 또한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파면/해고/징계/집단따돌림 등)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 2항).

특히, 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료인 등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24개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 나아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2항).

04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나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나요?

신고할 때는 가능한 알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주소, 아동의 이름과 성별, 나이, 특징 등)와 가족사항, 가해 의심자(모를 경우 미상), 아동학대 의심 이유와 상황, 신고자 요청 및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신고합니다. 신고내용이 자세할수록 아동에 대한 안전조치와 학대 조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은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반응에 따라 불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반응을 할 경우 큰일이 난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조사 과정을 통해 아동이 진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유도질문을 하거나 계속 학대 정황에 대해 캐묻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아동의 동의를 받고 증거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의 진술에 증거가 추가될 경우 이후 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

05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동에게 체벌을 할 때 도대체 몇 대부터 신체학대며, 어느 정도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강요해야 정서학대냐고 질문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지만 가장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기도 합니다. 훈육의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경계로 넘나드는 경우를 우리 모두 인식할 수 있게 빨간 경계선이 그어져 있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꿀밤을 때렸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신고한 부모님과 상담 중에 부모님이 가정 내에서 훈육을 이유로 아동에게 체벌을 사용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때린 것은 훈육이며,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동학대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은연중에 부모가 아이들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권의 원칙은 어떠한 개인도 다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님을 보장합니다. 즉, 아동도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출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출발에 따라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넘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주된 역할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부모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자, 본보기이며 안내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동을 대하던 인식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은 즐겁기도 하고, 보람을 주기도 하며, 행복감을 경험하게도 하지만 부모들은 지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갓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인도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며 긴 여정입니다. 이

런 부모의 삶은 엄청난 무게를 느끼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벽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아동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기질이 까다롭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도움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연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동이 100일이면 부모도 100일, 아동이 10살이면 부모로서도 10살이라고 하죠. 이는 우리가 대부분 양육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양육에 대해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발달에 대해 아는 것이 적고 본능이나 어린 시절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양육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아동을 대하던 인식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훈육은 반드시 '비폭력적 방식' 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이 아닌 아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학습자로서의 아이를 존중하고 도우며, 정보를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 가르침을 해야 합니다.

학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바야흐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시대’라고 부를만하다. 연일 교육관련 뉴스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학종 전형의 가치와 학종 전형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학종 전형 대비방안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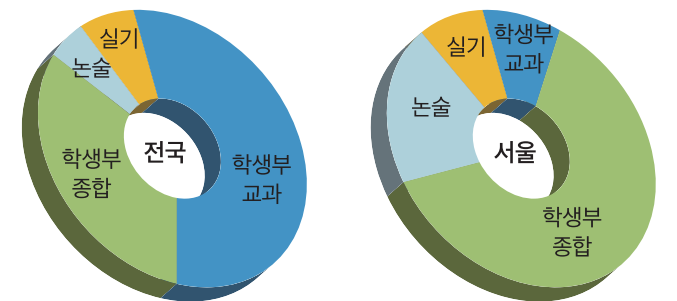
오세종 동인천고등학교 교사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치

학종 전형이란 대입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학생을 정량적 평가기준(숫자 기반의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시모집의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정시모집의 수능위주전형에 비해서 학종 전형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성취와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기준을 통해 선발한다. 학종 전형은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전공적합성을 키울 수 있는 경험과 활동을 통해 키운 역량을 대입진학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전형으로서 교육적 타당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학종 전형에 대한 오해들

2019학년도 대입수시모집(전국 4년제 대학)에서 학종 전형 선발인원은 84,764명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24.3%에 해당되며, 학생부교과전형은 144,340명으로 41.4%에 이른다. 전국 기준의 통계자료만 놓고 보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15개 대학의 수시모집 선발비율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학종 전형의 선발비율이 학생부교과전형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국 vs 서울지역 15개 대학 수시 모집인원 비교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전체 선발 규모보다는 희망대학 지역에 따라 주요 전형이 달라짐

정보 학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2015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학종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율이 본격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종 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들의 비율이 축소되자, 일부 수험생, 학부모, 혹은 교원 등의 입장에 따른 다양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학종 전형에서 불합격한 경우 정성적 평가의 특성상 자신이 불합격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학종 전형 평가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2022학년도 수능 및 대입제도 개편 시안(8월 확정 발표 예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학종 전형이 소위 ‘스펙’을 어려서부터 관리받으면 유리한 ‘금수저’들을 위한 전형이라는 주장과,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의 학생들에게도 사교육 없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의 등용문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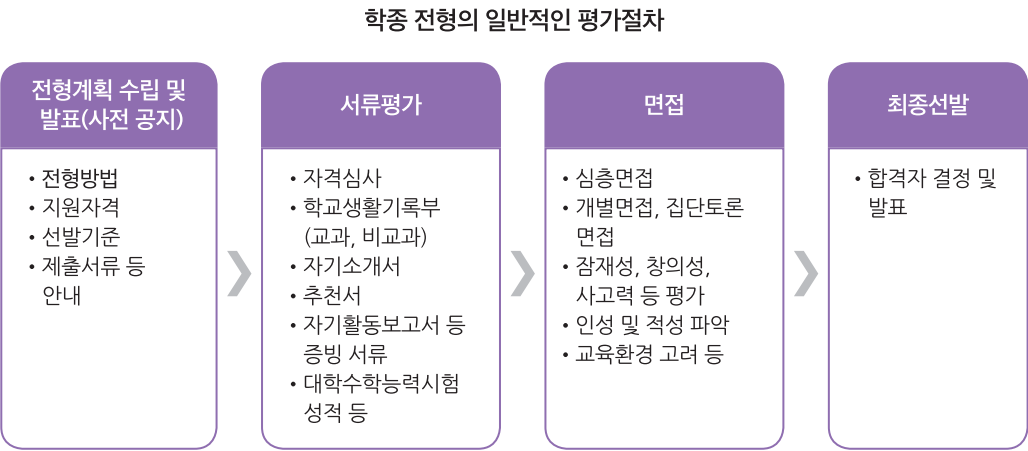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서는 학종 전형의 평가요소를 표준화하여 학종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서울지역 6개 대학이 학종전형의 평가항목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공유하였다.



출처 : 6개 대학 학종 평가요소별 평가항목 공동연구 결과 공유 컨퍼런스 발표자료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학교 현장에서의 대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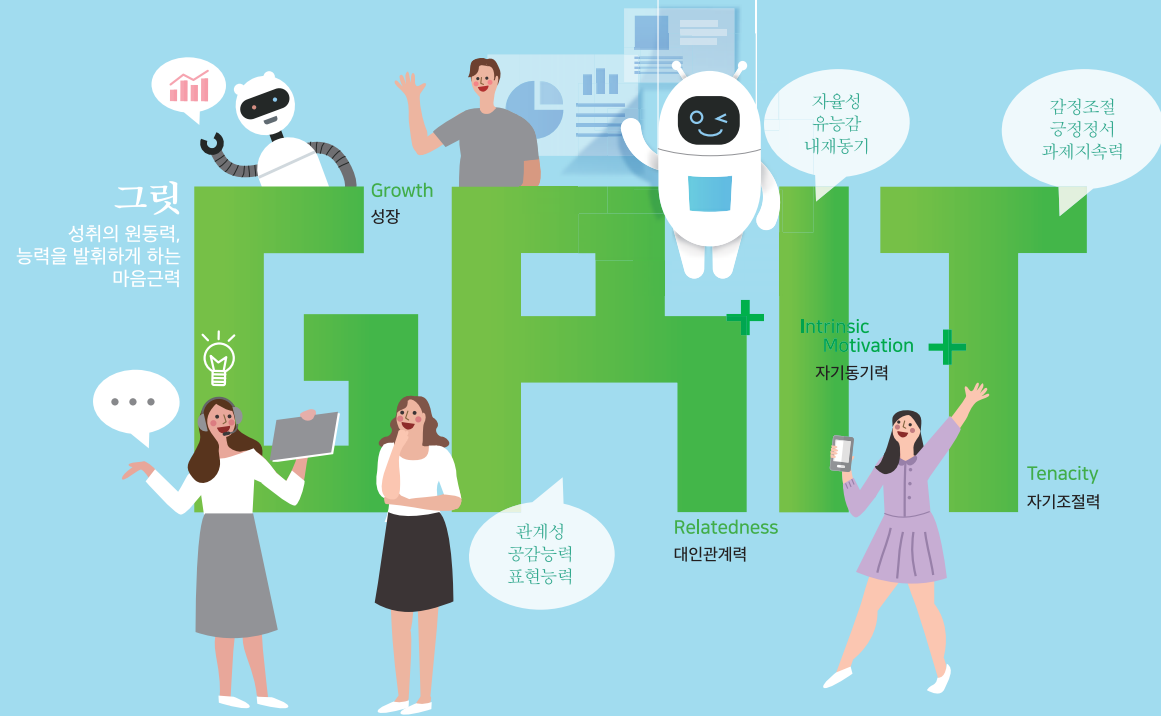
먼저 학종 전형의 선발 절차를 살펴보자. 학종 전형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대상으로 1단계 평가를 거쳐서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한 후, 2단계 평가에서 면접고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9학년도 대입수시모집의 학종 전형에서 이런 평가절차를 거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가장 많은 편이며, 일부 대학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릿(GRIT)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힘

장은주
그릿연구소 그릿코치

사진/이예슬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의 모습에서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원으로, 그것도 다양한 형태로 더 빨리 만들어 낼 수 있어 소비자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능력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클라우드 슈밥 다보스 포럼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정서지능과 영감지능을 꼽는다. 폭넓고 빠르게 혁명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시대에서는 정

서지능이 높은 리더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영감지능은 의미와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능력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암기와 재능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것은 기계로 대체되고, 비반복적이며 대인관계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영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비인지적인 능력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이며, 4차 산업시대 변화에 대응해 갈 수 있는 열쇠가 그릿(grit)에 있는 이유이다.



관계강화피트니스 중 강점 Press



시각, 청각, 운동감각을 이용한 팀 구호만들기



마음근력피트니스

자기조절력피트니스
Up & Down

관계강화피트니스
Press

동기강화피트니스
Mind Line Design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이루어가는 힘을 ‘그릿’이라고 한다. 그릿의 저자 안젤라 덕워스는 그릿이란 ‘열정과 끈기’라고 말한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에 있어서는 재능이나 성적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릿연구소에서는 그릿의 열정과 끈기는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 세 영역의 마음근력을 측정하여 그릿지수를 파악하고 그릿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음근력피트니스를 소개하며 교육하고 있다.

마음근력피트니스는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잘 파악하여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잘 관리하고 표현하며 그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자신이 원하는 관계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바라는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알고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고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을 훈련하여 나와 타인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 역량을 키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인천학생교육원은 지난 3월 31일과 4월 7일,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주제중심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거점학교 중·고등학교 20명의 선생님을 모시고 그릿, 마음근력피트니스를 15시간 진행하였다. 마음근력피트니스는 자기조절력피트니스 Up & Down, 관계강화피트니스 Press, 동기강화피트니스 Mind Line Design를 말한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마음근력피트니스는 자신의 마음의 온도를 체크하면서 시작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의 감정이 어떤지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자기조절력피트니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인식하고 다루게 하는 것이다.

꾸준히 스스로 하기

그릿훈련을 마음근력피트니스라고 명명한 것은 일회성으로 실행했을 때보다 지속적으로 실행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육이 키워지는데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것은 자신이 세계를 보고 해석했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게 해준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지 결정하게 하고 선택권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관계강화 Press

“나 스스로가 일상에서 ‘나’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을 명위할 힘을 얻어가는 느낌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타인에 대한
인정과 존중으로 변화할 용기를 얻어갑니다.
스마트해피니스, 강점스토리, 아바타활동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음근력피트니스를 경험한 선생님들의 이야기이다. 거점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릿을 키워나가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일상을 행복하게 채워나가길 기대한다.



“아이들에게도 좋겠지만 우선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나에 대해 알게 된 활동이었습니다.
2주간 그릿 수업을 들으면서 힐링이 되었어요~~!
재미있는 수업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고 선택하기

미국 스탠퍼드대 캐럴 드웁 박사는 그의 연구를 통해 ‘학습능력은 타고나거나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이 그릿을 키운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시작으로 자신의 관계성과 동기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 공감과 존중, 그리고 나 스스로를 일으키는 동기, 내가 즐겁게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는 나의 목적성과 방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원하는 목표를 위해 끝까지 해내는 힘은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해도 그 과정이 모두 즐거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루게 하는 동력은 목적성과 방향성을 찾을 때 샘솟는다.

스스로 해석하고 찾아가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뒤엔 두려운 시선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관계에서 활용하는 능력 또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을 기억하고 이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할 수 있는 힘이며 인공지능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열쇠일 것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긍정의 말 선물하기



지금 스웨덴은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는 시기이다. 우리가 사는 스웨덴 남부 지방은 4월 즈음이 되면 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고 색색의 꽃들이 피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겨울 동안 볼 수 없었던 해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봄이 되면 스웨덴 사람들의 얼굴엔 더없이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난다. 우리가 사는 작은 도시 '룬드'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잔디나 벤치에 앉아 일광욕을 즐긴다.

스웨덴에 살면서 이 사회가 가진 특징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투명, 복지, 인권, 다양성... 등 '스웨덴 사회는 이러하다'라고 딱 잘라 규정할 순 없지만 인상깊은 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간단한 집 수리나 가구 설치, 자신의 진로 설계까지, 스웨덴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되도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스웨덴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독립성을 강조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에는 스웨덴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스웨덴, 멀지만 친숙한 나라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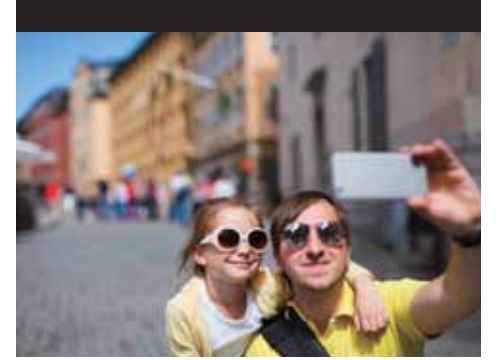
아이의 독립성을 신장시키는 스웨덴 교육

이성원 글짓는 스웨덴 교사

지난해 여름, 스웨덴 교육을 탐구하고 조사하기 위해 집 근처 공립 초등학교의 교사와 만났던 적이 있다. 그녀와 스웨덴, 한국 교육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웨덴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 초등학교보다 학부모 상담 횟수가 많거나 적다는 식의 답변을 기대했던 나는 스웨덴 교사의 대답을 듣고 나서 잠시 동안 머리가 멍해졌다. 학부모 상담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이뤄지고 그때 학부모는 그 둘의 대화를 주로 듣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학부모 상담에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 학생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는 교사,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학부모가 있다. 이 장면이 내겐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왜 이런 방식으로 상담을 하느냐는 나의 물음에 그녀는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담임교사를 하면서 '아이의 요새 학교생활', '아이의 성장을 위해 올 한해 어떤 부분을 더 지도하면 좋을지'와 같은 이야기를 학생과 나눴본 적이 없다. 대신 학부모 상담 주간이 되면 학부모와 함께 아이의 교육과 성장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스웨덴에서는 아이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위해 학부모 상담도 학생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이 새롭지만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생각해보면 아이의 독립성을 기르기 위한 스웨덴 교육은 비단 학부모 상담에만 그치지 않는다. 스웨덴 초등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학생마다 각기 다른 한해 목표를 세우고 그걸 평가 지표로 삼는데, 목표를 세우는 과정도 학생과 교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한다. 각기 다른 목표를 세운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학생이라는 사실도 새롭다. 이 또한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고, 교육은 아이들의 자립심을 길러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웨덴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하게 한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외투를 옷걸이에 걸어두는 일을 스스로 한다. 급식 시간에는 혼자 힘으로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으며 다 먹은 뒤에는 식기 정리를 한다. 교사는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적절히 개입한다.



S W E D E N

한 번은 어린아이들이 식기 정리뿐만 아니라 아동용 싱크대에서 직접 설거지 하는 모습을 보았다. 스웨덴 사람들이 독립적인 까닭은 이런 방식의 교육 때문일 것이다. 어린 아이를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가정과 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마트에 있는 어린이용 쇼핑 카트(아이가 직접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나 어린아이가 제 발로 탈 수 있는 저상 버스, 아이의 선택권과 의사를 존중하는 가정 교육 방식, 아이가 뭔가를 시도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는 부모, 아이에게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깨우칠 수 있도록 돕는 어른들이 스웨덴의 교육 환경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스웨덴의 가정과 학교, 사회는 아이들이 독립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찍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또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차 큰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고민하고 해결한다. 아이가 스스로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아이가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할 때 곁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어른이 아이에게 길을 안내하고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방식보다 훨씬 느리고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갈 수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에게 더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직접 깨우칠 수 있다.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스웨덴의 교육 방식, 그 시작은 일상에서 접하는 사소하고 작은 것들로부터 출발한다. 외출할 때 입을 옷과 신발을 아이가 결정하는 것, 그 옷을 혼자 힘으로 입도록 기다려주는 것, 몸을 씻을 때 스스로 비누칠을 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는 것. 비록 어른의 눈으로 보면 어설퍼 보일지 몰라도 아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꽤 많다.



자유공원을 얼마나 아시나요?

자유공원! 인천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 들었고, 한 번쯤은 왔었고, 자유공원을 아냐고 물으면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맥아더 동상이 있는 곳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자유공원이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나라의 어느 곳 못지않게 우리 근현대사의 흔적들을 마음 속 깊이 남겨진 상처처럼 간직한 곳이다. 자유공원 주변이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서 서구 열강의 경제적 침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현복 작전여자고등학교 교사
향토사진 제공/화도진도서관 사진/서주희

혼란스러운 역사 속 공간

인천은 1883년 1월에 개항을 했다. 개항 당시 인천은 인가 수 십호에 불과한 보잘 것 없는 어촌으로 발전이나 변화 없이 정체된 곳이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 중국, 서양인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부산이나 원산에 비해서 개항은 늦었으나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각국의 장사치들이 극성스럽게 몰려들었다.

일본, 중국, 서양의 국가들은 인천항과 그 주변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응봉산 주변을 자신들의 근거지인 조계로 설정해 줄 것을 조선 정부에 요구했고 곧 바로 이 산 주변에 각 나라의 조계지가 획정되었다. 일본은 중구 관동과 중앙동 일대를 중심으로 23,100㎡(약 7,000평)를 차지했고, 중국은 중구 선린동 일대 16,500㎡(약 5,000평)를 자신들의 생활 근거지로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조계지를 확보하고 있던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여 영국, 미국, 독일 등 다섯 나라는 공동으로 조계를 소유할 것을 결정하고, 1884년

에 관동에서 송학동에 이르는 야트막하고 넓은 구릉 지역, 475,000㎡(약 14만평)를 각국공동조계로 획정하였다. 이 지역들은 치외법권이 보장되는 관계로 각국은 한국에 작은 자신들의 영토를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응봉산 주변이 강대국의 조계지이다 보니 주변에는 청나라 사람으로 보병사를 수행했던 우리탕(吳禮堂)의 주택(현재 동국빌리지), 영국 사업가 존스톤의 별장(현재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독일 상인이었던 파울바우만의 주택(현재 자유유치원), 인천의 개항과 함께 들어온 세창 양행의 사원 숙소 건물 등이 응봉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응봉산을 가장 많이 차지한 서양인들은 각국조계 지역을 정비한 후에 1000여평 정도의 규모로 자신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의 자유공원이다. 처음 명칭은 ‘Public Gardern’이었으나 각국공원, 만국공원 등의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었다. 자유공원을 설계한 인물은 러시아에서 건축학교를 중퇴한 아파나시 세레딘사바틴(Afanasy Ivanovich Seredin-Sabatin 러시아인, 1860~1921)이었다.

세레딘사바틴은 구 러시아 공사관, 독립문 등을 포함해 여러 서구식 건축물을 설계하기도 했으며 1894년 6월부터 고종의 호위대장을 맡기도 했다.

이러한 연유로 1895년 10월에 벌어진 을미사변을 목격한 2명의 서양인 중 한 명이 되었으며 당시의 참담한 상황이 세레딘사바틴의 보고서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 세레딘사바틴은 독립문의 건립 이후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기었고 마지막으로 설계한 건물이 제물포구락부이다.



존스톤의 별장(현재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인천축항 전경과 각국공원 - 멀리 산 정상 우측에 존스톤의 별장(현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과 좌측의 세창양행(현 맥아더 장군 동상)이 보인다.



인천항 전경



미국 하퍼스 위클리 에 실린
제물포 구락부 발코니 사진

한성정부를 준비한 곳

자유공원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또 하나의 큰 역사적 의의는 이 공원이 현 대한민국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두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3.1운동이 실패로 끝난 이후 민족의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지휘할 중추기관으로서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국내·외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곳이 상해, 서울, 러시아의 연해주였다. 이 곳의 민족 지도자들은 임시정부의 통합을 위해 상해에 모였고 결국 1919년 4월 11일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맞게 되었다.²⁾

그런데 임시정부의 통합과정에서 민족 지도자들은 몇 가지 원칙에 합의를 하였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상해와 노령에서 설립한 정부들을 일체 작소하고,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 대표가 민족 전체의 대표인 것을 인정함이다.”

바로 한성정부의 구성을 준비한 곳이 바로 자유 공원이다. 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 수립 운동이 전개될 때 국내에서도 이규갑, 홍진 등이 중심이 되어 4월 2일 만국공원(자유공원)에서 13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13도 대표자 회의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포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대표자들은 상호 인식을 위해 손가락에 형갑이나 한지를 감았다고 하니 당시 일제의 감시와 통제가 얼마나 삼엄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홍예문 위쪽에 있는
'인천세관용지'와 '철이십일' 비석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준비되었던 만국공원에서의 13도 대표자 회의는 성원의 미달로 계획된 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회의에서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어 파리강화회의 및 각국에 조선독립의 승인을 요구할 것’을 결정하였다. 자유공원에서의 모임은 정부의 선포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한성정부 수립의 밑거름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유공원은 주변의 조계지들은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에 일본의 조계 폐쇄 결정에 따라 각국 조계와 청국 조계는 1914년에 폐지되었다. 자유공원은 일제가 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자리에 동공원을 건설한 뒤 서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45년 해방 후에 만국공원이라는 명칭을 다시 찾았고, 1957년에 맥아더 동상을 세운 뒤에 자유공원이라는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 인천은 자유공원이라는 엄청난 교육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변변한 안내판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관련 공무원 뿐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다음의 순서대로 자유공원 주변에 남아 있는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서 생긴 생채기를 찾아보자.

‘인천세관용지’와 ‘철이십일’ 비석(홍예문 위) → 세창양행 주춧돌(자유공원 입구 화단) → 공영주차장 방공호 → 헨켈 주택 터(제일감리교회 교육관) → 파울바우만 주택 터(자유유치원) → 인천 기상대 → 존스턴 별장터(한미수교 백주년 기념탑) → 조미수호조약 체결지(라파치아 웨딩홀) → 라파치아 웨딩홀 주변 방공호 → 제물포 구락부 → 각국 조계석 → 코노다케노스케 주택 터 (인천광역시 역사 자료관)



이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생긴 출출함은 차이나타운의 유서 깊은 자장면으로 마무리하면 과거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여행길이 될 것이다.

1)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413103005216?f=m&rcmd=rn> 기사 참조.

2) 상해 임시정부(1919년 4월 11일 수립), 한성 임시정부(1919년 4월 23일 수립), 블라디보스톡의 노령 임시정부(1919년 3월 21일 수립)가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공식 통합한 것은 1919년 9월 6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인천교육과 만나는 손쉬운 방법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News Letter



뉴스레터 구독신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인천교육 뉴스레터** 를 만나보세요.
인천교육소식, 학생·학부모기사, 교육문화정보를 내 손에서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매월 '인천교육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발행시기 월간
구 독 료 무료
문 의 공보담당관 032)420-8125